

현대불교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그대를 크게 세우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세간 최대 일회적 10배 최고 1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1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월환금이 최고 3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노대행/발행인 김 권집인·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개정 노동법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회생을 목적으로한 법이 정반대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가 절실하다. 부처님은 일찍이 노동권에 대해 노사 쌍방이 먼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원칙이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중 수족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경제관 노동권에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푸는 해법을 찾자.

(편집자 주)

장자(기업주)는 하인·집사(근로자)에게 이렇게 책임을 지어준다. 첫째,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킬 것이며, 둘째는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는 것이며, 셋째는 수고로움을 위로해 줄 것이며, 넷째는 병이 났을 때 약을 줄 것이며, 다섯째는 휴가를 줄 것 등이다.

(선생경)

남종·여종(근로자)이 주인(기업주)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일찍 일어나 주인의 부름을 그르치지 않음이고, 둘째는 해야 할 일을 마음을 써서 함이고, 셋째는 주인의 재물을 아껴서 구경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않음이고, 넷째는 주인이 출입할 때에 전승하고 영접함이고, 다섯째는 주인의 선한 말을 칭찬하고 그 악을 말하지 않음이다.

(육방대경)

주인(기업주)은 세속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풍족하게 주어 그 반란을 재가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종단마다 대형 건축 불사 15면
 - 황룡사 대중 공연 찾을까 6면
 - 답사기 미리 읽고 떠나자 12면
-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승려 어학학교 세운다

조계종 직지사예 빠르면 내년초 개교 빨리어등 전공 유학승 파견도

스님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특수학교가 설립된다. 이와 함께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전공 해외유학 장학선발 등 외국어교육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 불교계도 지난 11일 종교공원에서 개최된 범국민대회에서 신한국당의 노동법·인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노동법 통과절차 잘못됐다”

14일 종단협 간담회에서 밝혀... 공식입장 논의 한·중·일대회 집행위원장 홍파스님 위촉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14일 하림각에서 회장단 및 주요종단 연석간담회를 열고 현시국과 관련 “정부의 노동법 통과절차의 잘못을 지적하고, 위헌적임을 밝히기로 했다.”

홍파스님은 이와관련 회의가 끝난 후 발표를 통해 “개입시국에 불교계가 침묵해서는 안되며, 이에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와 노동자 모두에게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을 촉구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울가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대회 한국측 집행위원장에게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위촉하고, 위원구성은 집행위원장에 임명키로 했다. 진중회 문제는 “관망대응” 방침을 정했다.

육기관 설립 및 유학승 파견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어교육 특수학교로 설립되는 어학학교는 직지사(주지승인·동국학원 이사장)에 내년초 설립되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강좌를 개설 각 10명의 승려를 영선, 2~3년의 교육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한다. 어학학교 설립 및 운영주체는 직지사이며, 교육원은 교육원장 특수학교 인정을 담당한다.

교육원 교육부장 함석스님은 “불교의 전문적인 어학능력 양성을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어학학교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고 밝히고 “빠르면 내년초 개교가 가능하며, 정부에 특수대학원 인가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은 어학학교 설립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유임
총회의장·감사원장도

천태종 전운태 총무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총회에서 유임됐다. 이회총회 총회의장 덕산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박철철 참의원장 등 4원장이 연임됐다.

천태종의 이번 인사는 3대 종정에 도용스님이 추대된 이후 처음있는 정기인사로 이번까지 형식적인 인사관행에 그쳐온 천태종이 원장급에 이어 부장급(19일 예정) 주지급(26일 예정) 인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인사관행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노동법 국민요구 외면말라”

13일 조계사서 민주수호 시국법회

반민주악법 저지를 위한 불교비상사국회의(공동의장 청화스님 외 11명)는 지난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민주수호를 위한 시국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조계종 중앙총회 부의장) 효림스님을 비롯 스님과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국 법회에서는 청화스님은 법어를 통해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들의 생존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수단으로 불교의 가르침에 비춰 정당하다”며 “정부가 시국수습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물리쳐내려한다면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회를 마친 후 민주수호의 영혼을 달래는 대형 영가 등 2개와 소영가 등 1백여개를 들고 조계사 경내를 돌며, 김경삼총무원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불교사국 비상회의는 노동법 및 인기부법 철회를 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조계사에서 시국법회를 열 방침이다.

이회 일지스님 등 인천지역 스님 6명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과 함께 13일 노동법 인기부법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법종교인 1백5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법종교인 발행
타블로이드 4면

현대불교신문 제2회 신행수기 당선작 시상식

일시: 1997년 2월 3일(월) 오전 10시 ■ 장소: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녹수침산

불자님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미륵대길상 가정호신불

영속산 玉龍子 석지형스님 대길상도

새해 불자님 가정에 불은이 증만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3월 부산일보사 전서관과 5월 서울 잠실롯데월드 특설 전서관에서 玉龍子 석지형 스님 대길상도전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각계의 여러 지도자와 불자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민적 관심과 성원하게 거행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길상도는 이 땅의 여러 중요한 곳에 작품이 증정되었고 수천여 작품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소장하였습니다. 이 땅에 크나큰 길상의 힘을 전한 길상도 가운데 모든 중생이 상봉하는 용화세계를 표현한 미륵부처님 대길상도는 그중의 대표작이었습니다. 뒤이어 여러 불자님께서 미륵부처님 대길상을 전하여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길상도전 이후 한해동안 매우 한 번의 수습회에 걸쳐 수만여명의 불자님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한 원력으로 힘 입어 순금과 순은으로 소중하게 불자님 가정을 위한 미륵대길상 호신불을 조성하여 법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미륵대길상 호신불을 인연 맺는 불자님 가정을 위하여 3천원 기도를 지금 정성 봉행하고 축원하여 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정성다하여 조성하고 여백에 기도점안올린 호신불이 불자님 가정과 곳곳에 전하여져 인연불자님 신심증경되고 큰소원 이루어서 모든 중생 구경성불 불국정토 이루어 지어다

◎ 우주법계를 축약한 고귀한 축약 =

부처님께 올리는 큰 원력과 정성으로 조성된 이 호신불은 위로부터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태양, 상서로운 구름, 새, 중심에는 부처님, 땅과 삼라만상을 의미하는 산, 나무, 달, 석등, 뉘는 물을 상징하는 거북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우주적 의미와 완성된 부처님 세계의 기운이 생동합니다.

◎ 대길상 호신불에 갖는 상징과 의미 =

부처님 모든 중생의 생불, 불국정토와신, 불자의 가정을 지켜주심

태양 생명의 빛, 지혜, 희망, 원성, 명예

새 자유, 해탈, 행복, 기쁜소식

구름 안개 부처님의 상서로운 기운, 우담바라 향기

나무 용화수, 지혜, 진리, 우주나무

◎ 미륵 대길상 호신불을 전하여 받은 곳 =

가정, 사무실, 사업장, 자녀공부방, 병실, 정진처

• 해외의 인연 불자에게도 전합니다.

• 미륵 대길상 호신불을 수지하고 마음을 열어 인연으로 기원하고 정진 하십시오. 대길상, 대길상의 부처님 세계가 열려옵니다.

◎ 미륵 대길상 호신불은 순은과 순금으로 정성다해 조성한 대성보입니다. 자손대대로 전하고 물려줄 가보이오니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3천원 기도 축원 : 3천원 특별응모정진 기도에 선행축원 동참하시는 불자님께 법공양으로 전하여 드립니다

포교·복자·정학·교육봉사팀

문 대한불교 소림정사·소림불교아카데미

의 조 계 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02)511-6210~5, FAX: 511-6216